경찰, 오현섭 시장 체포 나서

‘여수 조명사업 비리’ 출석 요구에 잠적 … 측근 “변호사와 대책 조율”

수뢰의혹 시의원들 본격 소환조사

여수시 경관 조명사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현섭 여수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고 돌연 잠적해 경찰이 체포에 나섰다.

22일 여수시와 오 시장의 측근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 3명이 이날 오전 오 시장을 만나기 위해 여수시청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경찰청 직원들은 이날 시장 부속실을 찾아가 “오 시장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어디 갔느냐?”라는 말을 전한 뒤 1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직후 3일간 연가(21~24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 시장은 서울 모처에서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한 측근은 “오 시장이 갑자기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무작정 갈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을 했었다”며 “변호사와 조율한 뒤 경찰의 출석에 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수시의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발주받은 (주)나이토피아 대표 남모(51)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았다가 21일 경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여수시청 전 국장급 간부 김모(여·59)씨와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수사의뢰됐다.

이와 함께 여수경찰은 오시장 측근 J씨에게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여수시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500만원이 든 서류 봉투를 발견해 쌍봉지구대에 신고한 S의원과, 지난해 말 J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돌려 준 K의원을 상대로 21일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22일 구속된 김모 전 국장을 상대로 J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한 후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여수시청 도심개발사업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가 발주한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 경관조명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3억원 중 1억6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가량은 오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J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김씨에게서 받은 돈 1억원을 여수시의원 10명에게 300만~1000만원씩 건넨 의혹을 받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양식장 못 지나간다” 21일 완도군 청산도 해역에서 어민들이 쾌속선 ‘오렌지호’의 항로 인근에 소형 채취선 100여척을 띄워놓고 작업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어장 피해 주장 장흥~제주 쾌속선 반대 어민들

어선 100여척 동원 시운항 항로 봉쇄

청산도 인근서 회항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놓고 선사와 인근 어민들이 갈등 〈본보 6월 15일자 10면〉 하고 있는 가운데 쾌속선이 시운항에 나섰으나 어민들이 어선을 항로 주변에 정박시킨 채 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회항했다.

다음달 2일 장흥~제주간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는 (주)장흥해운 소속 2357t급 쾌속선 오렌지호는 21일 오후 12시 15분 장흥 노력도항을 출항해 제주 성산포까지 시운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쾌속선 운항에 반대하는 주변지역 어민들이 수산물 채취선 100여 척을 항로 인근 양식장에 정박시킨 채 작업을 벌여 청산도 인근 해역에서 출항지인 노력도항으로 귀항했다.

박상래 완도군 어민대표 대책위원장은 “대형 쾌속선이 고속으로 운항하게 되면 너울로 인해 주변 양식장의 미역과 다시마 등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지역 어민들이 쾌속선 운항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지만 결국 시운항까지 하는 것을 보고 채취선 100여 척을 정박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완도 금일읍·금당면·약산면 등 어민들은 지난 7일 ‘쾌속선 항로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쾌속선 운항을 반대해 왔다.

이날 오렌지호 시운항 결과 기본 파고가 20㎝라고 가정할 경우 쾌속선이 지나는 곳에서 100m, 200m, 300m 떨어진 해역에서 각각 50㎝, 40㎝, 30㎝의 파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렌지호는 길이 71m·폭 19m 규모이며 여객정원 590명과 승용차 80대, 트럭 10대 등을 싣고 다음달 2일부터 하루 1~2회 장흥과 제주를 오갈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시장·시청간부·시의원 줄줄이 비리 연루

여수 시민들 ‘망연자실’

여수가 충격에 휩싸였다. 민선 4기 마무리 시점에서 오현섭 시장과 국장급 간부, 시의원들이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은 “민선 4기를 불과 1주일여 앞두고 시장과 간부 공무원, 시의원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터져 끝내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 듯 침통한 분위기에서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과 시정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심란한 표정이었다.

지역주민들은 “다른 자치단체 일인줄만 알았는데 결국 우리 고장에서도 비리 사건이 불거져 큰 불명예”라며 한탄하면서도 공직사회 부조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모습이었다.

시청 공무원 A씨는 “시장의 체포영장 발부설을 전해 들은 뒤부터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며 “현 시장이 돌연 잠적하고 국장급 간부가 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지역민들 얼굴을 볼지 두렵다”며 고개를 돌렸다.

여수시의회 분위기도 흉흉하다. 시의원들은 서로 말을 극도로 아끼고 취재진을 피하면서도 언론 보도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여수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B씨는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시의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동안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민관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여수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불명예”라고 길게 한숨지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조선대생들 학생처 부처장실 난입 소동

조선대 학생들이 학생처 부처장실에서 집기를 뒤엎는 등 소동을 벌여 대학 측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 20분께 이 대학 학생처 부처장실에 학생 7명이 난입, 여조교 혼자 지키는 사무실에서 벽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 집기를 들어냈다.

지난 18일 조선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학생부처장실에 난입해 일부 집기를 사무실 밖으로 들어내거나 뒤집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학 측은 이 학생들이 총학생회 관계자들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에 따르면 학생처가 그동안 총학생회의 상당수 업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함에 따라 갈등이 커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 “총학생회에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요구를 한 데 대해, 학생회가 대학측이 자신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며 “경위를 조사해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업 중 다툼 선원 1명 실종

21일 오전 10시께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는 작업중이던 신안선적 10t급 유자망어선 해정호 선원 박모(50)씨가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다.

당시 박씨는 동료 선원 이모(41)씨와 작업하던 중 말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오병윤 민노 총장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최항석 판사는 20일 당원 명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 등)로 경찰이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과 홍보국장 윤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재판에 충실이 임할 것을 약속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받다 피해자 만나 절도까지 들통

쌍나팔

○…강도 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30대가 피해 조서를 작성하러온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는 바람에 차량 절도 행각까지 들통.

○…2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7·동구 운림동)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께 동구 학동 H카센터 앞길에 주차된 이모(49)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불을 내고 도주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동구 학동 A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것.

○…이씨의 승용차에서 훔친 수첩을 지니고 있던 김씨는 강도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수첩을 빼앗겼는데, 수첩 주인 이씨가 이를 우연히 보는 바람에 범행 사실이 발각.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